

## 〈소씨삼대록〉의 소운명 부부 형상화와 그 의미\*

정선희\*\*

— <차례> —

1. 서론
2. 소운명 부부의 형상화 양상
  - 1) 감정적인 운명, 후덕하고 논리적인 임씨
  - 2) 사랑에 빠진 운명, 초연하고 청아한 이씨
  - 3) 다른 아내만 바라보는 운명, 질투하는 정씨
3. 소운명 부부 형상화의 의미
  - 1) 평범한 가장의 시험대
  - 2) 극복하기 어려운 전생의 업보와 운명 확인
  - 3) 비범한 아내들의 연대 강조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의 국문장편소설인 〈소씨삼대록〉 속 소운명 부부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운명 부부에 관한 서사는 〈소현성록〉 연작 전체 15권 중 세 권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인군자형인 아버지 소현성이나 영웅호걸형인 형 운성과는 달리 ‘보통 남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엔 오히려 특별한 면이 있다.

소운명과 임씨 부인, 이씨 부인, 정씨 부인의 조합을 각각 분석하고 그에 담긴 의미를 추출하였다. 운명은 선량하고 바르며 문재(文才)가 뛰어나지만 너그럽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므로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임씨는 후덕하고 어질며 논리적이어서 선비나 군자와 같은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이씨는 예쁘고 연약한 외모이지만 심지가 굳고 정결하며 청아한 여성이어서, 운명이 사모하는 것과 달리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초연하다. 정씨는 남편이 이씨만 바라보는 것에 질투를 느껴 악행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쫓겨나며 굴욕적인 말년을 보낸다.

이러한 부부 형상화에 담긴 의미는 첫째, 평범한 가장의 시험대, 둘째, 극복하기 어려운 전생의 업보와 운명 확인, 셋째, 비범한 아내들의 연대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소운명은 감정적이고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어 악인들의 모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죄 없는 아내를 핍박하고 아들까지 죽이려 하였다. 이러한 면은 과묵하고 절제하며 논리적인 아내 임씨와 대조되면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전생의 업보로 얽힌 사람들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동방선이었던 운명, 봉래궁 선녀였던 임씨, 남해 용왕의 딸이었던 이씨, 그 시녀였던 정씨 등 이들은 전생에서 흠모하고 사통하고 분노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어져 운명적으로 만나고 고난당하고 극복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극복될 뿐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비범한 임씨와 이씨는 서로 변론하고 위로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인군자나 영웅호걸이 아닌, 선인도 악인도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운명’의 모습, 감정에 휘둘리고 사랑에 흔들리는 남성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흥미로운 서사로 다가가 작품에 몰입하는 효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 □ <소현성록>, <소씨삼대록>, 국문장편소설, 소운명, 부부, 가장, 범인형 남성

## 1. 서론

이 글에서는 17세기 후반의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연작의 후편(後篇)인 <소씨삼대록> 속 소운명 부부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현성록> 연작은 총 15권의 분량인데 전편(前篇) 즉 본전(本傳)은 1~4권, 후편 즉 별전(別傳)은 5~15권으로 되어 있다. 전편은 주인공인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후편은 그의 아들과 딸들의 서사가 펼쳐진다. 특히 아들 중 운성과 운명 부부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은데, 운성 부부는 5권 55쪽에서부터 8권 91쪽까지 약 세 권 반 정도, 운명 부부는 9권 85쪽에

서부터 12권 77쪽까지 약 세 권 정도의 분량이다. 소현성의 자녀가 10자 5녀인데 이렇게 편성된 것은 이 두 아들이 중요 인물이라는 표지가 된다.

그런데 운성은 ‘영웅호걸형 가장(家長)’<sup>1)</sup>, ‘성장하는 인물’<sup>2)</sup>이라는 면에 주목하여 연구된 바 있지만, 운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운명은 아버지 소현성처럼 성인군자형이지도 않고, 형 운성처럼 영웅호걸형도 아니며, 미색을 탐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 남자<sup>3)</sup>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현성록>은 국문장편소설 중 초기작에 해당하고 좋은 가문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으며 수신(修身)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작품이기에, 소현성이나 운성 같은 인물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의의를 탐구하는 것이 작품 전체의 주지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 인물은 훌륭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으로만 나눌 수도 없는 ‘보통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다. 소현성의 첫째 부인인 화부인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녀는 좋은 품성과 나쁜 품성을 같이 갖고 있는 여성이면서 감정과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여성이다. 그래서 특별히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참을성 있고 대범하며 투기하지 않고 내외사를 분별하며 온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모를 보이기엔 지적받고 좌절되며 계도된다.<sup>4)</sup> 그런데 이 화부인의 아들이 바로 ‘운명’이다. 운명도

- 
- 1)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 『고소설연구』 32, 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 2)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 3)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 4)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쪽.

어머니처럼 작품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지만 많은 부분 할애되면서 흥미로운 서사를 진행하는 인물이기에 그를 통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들은 군자형이나 호걸형의 남성보다는 범인형 남성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주목했을 수 있다. 자신과 비슷한,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과 비슷한 그가 웃고 우는 것에 더욱 몰입했을 수도 있다.

소운명은 미색을 탐하는 남성답게 일곱 명의 아내를 두는데, 첫째 부인이 임씨, 둘째 부인이 이씨, 셋째 부인이 정씨이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민씨 등이라고 지칭되며 매우 소략하게 처리되므로 본고에서는 세 명의 아내들과의 관계만 다루고자 한다. 이들 부부의 형상화 양상을 각각 살펴본 뒤, 이러한 형상화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도록 한다.<sup>5)</sup>

## 2. 소운명 부부의 형상화 양상

### 1) 감정적인 운명, 후덕하고 논리적인 임씨

소운명이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 옥같이 아름다운 자태와 골격을 지녔고 글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풍채가 좋고 곱고 맑으며 문장이 뛰어나다는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됨이 가벼운 면이 있고 성정이 불같으며 마음이 좁은 것이 흠이라는 서술도 이어진다.

5) <소현성록> 연작의 부부관계나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중 주요하게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쪽;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97~129쪽;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21~355쪽;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소승상의 여덟 번째 아들 운명은 화부인의 소생으로 하늘이 내려준 옥같이 아름다운 자태와 골격을 지녔고, 글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당하고 우아한 풍채와 슬기롭고 뛰어난 말과 행동이 죽히 반악(潘岳)과 하안(何晏)의 고움을 더럽게 여기고 송위의 맑음을 나무라며, 나부끼는 것마다 바람 앞의 아름다운 나무와 같고, 희고 깨끗한 것이 구름 속 신선과 같았다. 또한 문장이 빼어나 조자건(曹子建)의 칠보시(七步詩)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태백(李太白)의 「고풍(古風)」, 59수를 압두하였다.

그래서 온 집안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지만, 사람됨이 문인재자(文人才子)의 가벼운 모습이 있고 성정이 일어나는 불같으며 마음이 좁았다. 맑고 아름다우며 선량하고 바르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후덕한 태도는 운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어질고 명석하기는 운경만 못하나, 무릇 풍채와 태도와 문재(文才)는 기특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기를 화부인의 복이라고 하였다.<sup>6)</sup>

운명이 됴됨이가 맑고 아름다우며 선량하고 바르지만,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운성보다 마음이 너그럽거나 후덕하지 못하고, 운경보다 어질고 명석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풍채와 태도, 문재(文才)가 기특하니 모두 칭찬하며 어머니 화부인의 복이라고 하였고, 14세에 혼인할 곳을 구하니 태상경 임수보가 몹시 사랑하여 구혼할 정도의 인물이다.

특히 반악이나 하안처럼 잘 생긴 문인, 송옥이나 조자건, 이태백처럼 대단한 시인들과 비교되면서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의 행실을 보면 문재(文才)를 발휘하는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슬기롭고 뛰어난 말과 행동’도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성보다 못하다는 너그럽고 후덕함, 운경보다 못하다는 어질고 명석함이 부족한 경우가 부각되면서 아내와의 갈등을 야기하곤 한다.

6) <소현성록> 9권 85쪽. 작품 인용은 현대역본(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으로 하고, 출전은 원문의 권과 쪽수를 제시한다.

그의 너그럽지 못함, 어질지 못함은 임씨와의 혼인날부터 종종 언급된다. 임씨가 보통 사람들보다 못생기고 얼굴에 큰 혹이 세 개가 있는 박색<sup>7)</sup>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소현성은 그녀의 성품과 덕을 알아보고 호뭇해하는 반면, 운명은 그녀의 외모만 보고 안색이 찬 재와 같아지거나 혼백이 놀라 신방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된다. 어머니 화부인과 더불어 임씨의 외모의 흠측함만을 한스러워하며 박대하는데, 석부인이나 양부인이 그녀의 행실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 공경할 만하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며 한탄한다.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까지 하여, 어찌 아내를 내치려고 하느냐, 사덕(四德)이 뛰어난데도 얼굴을 나무라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책망을 듣는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창기들을 모아 놀면서 임씨에게는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타고난 바가 맑고 고결하며 말이 유순하고 법도가 있어 조금도 개의치 않고 몸가짐을 여유 있게 하고, 하는 일마다 태입(太任)과 강후(姜后)를 본받고, 하는 말마다 마황후와 등황후 같이 하여’<sup>8)</sup>, 식구들이 모두 칭찬한다. 현철하고 덕이 있던 황후들에 비유되는 여성이다.

그렇다고 하여 유순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시아버지와와의 대화에서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하여 상을 받으며<sup>9)</sup>, 운명과 놀던 창기들

7) 신부가 다만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극히 흉해 모든 사람이 한 번 바라보고는 문득 놀라는 것이었다. 낮이 누렁고 검었으며 키가 몹시 작았고 허리가 퍼졌으며 엷고 매사 형용이 이상할 뿐 아니라 얼굴에 큰 혹이 세 개가 좌우로 있으니 다른 아닌 무염(無鹽)보다도 더한 박색이었다. <소현성록> 9권 87쪽.

8) <소현성록> 9권 93쪽.

9)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애정이 상해 불행하게 될 텐데도 직언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아비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 충고를 하여 옳은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무엇이 옳은 길이나고 묻는 물음에, 남자는 충효와 우애를 행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으며, 검소함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자, 유생의 아내는 사치하면 안 된다면서 맹광처럼 살겠다고 하였다. <소현성록> 9권 90~91

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천인(賤人)이 사족(士族)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고 하여 법대로 다스리라고 운명에게 요구한다. 이를 본 소부인은 그녀가 역량과 식견이 크고 바르고 엄숙하여 한갓 유순한 여자가 아니고 또 잔약하지도 않다면서 ‘어질고 지덕(知德)이 뛰어난 여자’, ‘여자 가운데 군자’라고 평가한다. 소현성도 그녀를 ‘선비와 군자의 모습이 있다’고 평가하며 흐뭇해한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처음 처소에 들어온 운명이 그동안 공부하느라 오지 못했다고 변명하자, 임씨는 “낭군은 색(色)을 귀하게 여기고 덕(德)을 천하게 여깁니다. 첩의 못생긴 외모가 서시(西施)를 바라지 못하니 어찌 군자의 박대를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sup>10)</sup>라면서 남편의 미색 좋아함을 꼬집어 말한다. 무색해진 운명이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장난스럽게 웃고는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씀은 저를 몹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을 떨쳐버리고 오늘부터 화락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sup>11)</sup>라고 한다. 하지만 임씨는 정색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혼인 후 처음 같이 하는 날 사과하는 남편에게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을 꾸짖는 모습은 흔치 않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운명이 임씨에게 감탄하게 하는 부분은 임씨의 ‘시재(詩才)’이다. 장인이 딸의 재주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본 것이다. 임씨가 써놓은 시들을 여러 장 발견하고는 소약란의 직금도(織錦圖)보다도 낫다고 칭찬하면서 그 글들에 차운하기도 한다. 운명도 시를 잘 지으니 옥과 구슬과 같이 잘 지었지만 임씨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칭탄하고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고도 임씨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기만

쪽. 그녀의 논리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 표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88~191쪽. 참조.

10) <소현성록> 9권 101쪽.

11) <소현성록> 9권 102쪽.

하니, 운명은 그녀의 침착하고 단정함을 새삼 공경하여 ‘행동거지가 위엄이 있고 신중하니 마땅히 이른바 숙녀라 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명은 이렇게 그녀에게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혹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어리는 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관직이 높아지면 당당하게 절대 미인을 얻을 것이라고 다짐할 정도로 미색에 집착한다. 결국 임씨의 ‘홀홀한 덕과 문재를 공경하여’ 원앙 이불에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이후에 한 달에 열흘 씩 임씨와 함께하지만 운명은 매번 그녀의 얼굴을 보고 탄식하고 슬피하고, 이를 본 화부인은 아들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재취(再娶)할 뜻을 둔다. 운명이 급제하여 관직이 높아지니 더욱 재취하려는 뜻이 일어나 번민하고 계교를 생각하는데, 그러던 중 산서지방의 순안어사로 나가 이씨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운명은 재주가 뛰어나고 풍채도 좋으며 명성이 조정에 진동할 정도이고 문장이 이태백과 두보를 압도하는 인물<sup>12)</sup>이라고 서술되지만, 미색에만 혹하는 남성으로서의 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임씨는 비록 흠모이지만 부덕(婦德)과 법도(法度)를 지니고 있어 존경할 만한 여성, 군자 같은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2) 사랑에 빠진 운명, 초연하고 청아한 이씨

운명은 산서지방에서 이원기라는 재상의 딸 옥주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시비 춘앵과 남복(男服)을 하고 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녀를 만나게 된다. 이씨가 남복을 하고 있었기에 첫 만남은 남자로서였다. 하지만 그를 보고는 ‘흐린 구름 속의 밝은 달 같고 진흙 가운데에 묻힌

12) 소운명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젊은이로 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옥당(玉堂)을 밟으니 명성과 덕망이 조정에 진동하였고 문장은 이태백(李太白)과 두보(杜甫)를 압도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탄복하여 그 재취자리를 바라며 구혼하는 매파가 문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소현성록> 10권 1쪽.

좋은 옥 같이 광채가 영롱'하다거나 '그 슬픈 얼굴과 애절한 말을 듣고 몹시 흠모하여'라고 한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 감정이 묻어난다. 첫 대면에 운명이 그에게 마음이 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형제로 약속을 맺자고 제안하면서 함께 관아로 가서 살다가 서울에도 같이 가자고 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씨가 사양하자, 처음 보지만 10년 같이 한 사람보다 친애하여 말을 꺼냈고, 있을 데가 없다 하니 차마 놔두고 갈 수 없다면서 재차 권하여 관아로 데려가 별체에 기거하게 한다.

운명이 본 그녀의 모습은 '어렵풋한 신선의 자태와 침착한 기질이 이미 선녀의 모습을 빼앗은 것과 같았고, 맑고 깨끗한 풍채와 용모의 맑은 골격이 사방에 비쳤다. 또 봉황과 같은 눈이 위엄이 있고 푸른 눈썹이 어여쁘며 가는 허리가 아름다워 서시(西施)와 양귀비(楊貴妃)의 얼굴도 미치지 못할 바<sup>13)</sup>였다. 남자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흠모하면서 감탄하며' '품격 있는 기질과 온화한 얼굴은 처음 본 바'라고 하면서 형제의 예로 약속하기를 바란다. 16세인 운명과 12세인 이씨는 이렇게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는 글을 쓰고 답소를 나누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운명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 붉은 입술이 아리따운 것이 절묘하고 소담스러우며 침착하니 더욱 사랑하고 항복하여' 이름과 가족사를 묻고는 함께 슬퍼한다.

그곳에서 7개월 동안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씨를 데리고 가는데, 시를 짓자고 하여 서로의 재주에 감탄하고 흠모 하게 된다. 이씨의 재주와 목소리, 말에 흠뻑 매료된 운명은 자기도 모르게, 너 같은 아내를 얻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sup>14)</sup>고 말하고 만다. 앵혈(鶯血)을 보이게 되자 이씨는 결국 자신이 여자임을 고백한다. 이에 운명은 부부가 되자고 하고, 이씨는 칼을 빼 들면서 거절하지만, 춘앵이 나중에 부모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라고 하여 중재가 된다. 이씨는 자기를 보

13) 〈소현성록〉 10권 11쪽.

14) 〈소현성록〉 10권 19쪽.

살피 준 운명의 은혜에 감격하였고 달리 어찌할 방법도 없어 허락하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운명은 이씨가 여자라는 것을 숨겼으나 소송상이 알아차리고 이씨를 강정 윤부인에게 맡기는데, 이씨가 없어지자 운명은 몹시 놀라 노심초사하다가 병이 생긴다. 운성이 이씨를 운명과 혼인시키는 게 낫겠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씨의 강직한 심성을 높이 산 승상이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이때에 승상은 이씨의 사람됨을 ‘지극히 강렬하여 진실로 송백희(宋伯姬)와 추결부(秋潔婦)의 무리인데 나이가 어려 잠시 약한 기운이 있으나 훗날 나이가 들면 기운이 나타날 여자’라고 평한다. 궁에 불이 나서 대신들이 피하라고 권하였으나 밤에 외출할 때는 보모가 없으면 마루에도 내려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에 타 죽었던 송백희, 남편이 자기를 몰라보고 희롱했던 것을 수치로 여겨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하고는 강에 몸을 던져 죽었던 추결부와 같이 절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고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지만 절개를 잘 지켰기에 운명의 배필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도 자신이 운명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평생을 의탁하여 조용히 규방에서 살겠다고 하여 혼인은 이루어진다. 승상은 운명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벌하여 30여 대의 매를 때리지만 한상서와 석과 등의 조언을 받아들여 혼인하게 한다. 혼인 날 이씨의 모습을 보면, 운명이 매혹될 만한 미모를 지녔으며 맑고 청아한 기운에 여유로운 풍채, 예의에 맞는 몸가짐을 지녔다.

이씨가 약한 몸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것을 이기지 못하면서 선삼(蟬衫)과 인대(麟帶)에 수놓은 비단 치마를 끌고 고운 손에는 칠보부채를 들고 맞절을 마쳤다. 걸음걸이를 돌이켜 폐백을 받들어 시부모님께 나아오니, 맑은 골격은 푸른 물의 기운을 품었고 옥같이 기이한 걸음걸이는 수정을 새긴 것 같아 가볍고

경쾌하였다. 가는 허리는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광풍에 나부끼는 것 같았고, 흰 이마는 하얀 눈이 영겨 있는 듯하며, 나비 같은 눈썹은 초승달이 구름 사이에서 엿보는 것 같았다. 푸른 머리털과 붉은 귀밑머리, 별 두 개가 걸려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두 눈이 태연자약하고 뛰어난, 나는 봉황과 같았다. 또한 풍채는 여유풍고 예절에 맞는 몸가짐은 조용하고 그윽하여 진실로 요지연(瑤池淵)의 서왕모(西王母)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지 못하고 월궁항아(月宮缸娥)도 부끄러움을 머금을 것이었다.<sup>15)</sup>

운명은 이를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견줄 데가 없어 붉은 입술에 옥 같은 이를 반쯤 열고 기쁜 빛을 드러낸다. 신방에 들어가서는 춘정(春情)을 건잡을 수 없어 급하게 손을 잡는가 하면, 은근한 정을 비할 곳이 없어 함께 원앙 비단 이불에 나아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운명이 이씨에게 매혹된 반면, 이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프게 탄식하거나, 자신이 도로에 떠돌아 다녔기에 맑은 행실이 오해를 받을까 두렵다면서 첫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엄하게 말한다. 연약하고 온화하던 기상이 변하여 맹렬하기가 서리와 같으니 운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아침이 되고 만다.

석파가 이씨를 평하기를 ‘곱고 아름답기’가 형씨보다 더하다고 극찬하자, 소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씨가 낫다고 평한다.

“서모가 사람 알기를 밝게 하지 못하십니다. 이씨가 비록 맑고 아름다우며 소담하지만 맑은 것이 지나치며, 가냘프고 약하여 나부끼는 듯하니, 이는 다름 아닌 조비연(趙飛燕)의 가볍고 날랜 모습입니다. 형씨는 씩씩하고 맑고 깨끗하며 매우 윤택하여 이슬을 맞은 꽃송이 같으니 이는 서시(西施)와 탁문군(卓文君)의 미모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씨의 인물은 냉담하고 온순한데, 형씨는 온화하며 씩씩하고도 상쾌하니, 이른바 형씨는 영웅 같고 이씨는 군자 같

15) <소현성록> 10권 59~60쪽.

습니다. 품격이 서로 비슷하나 그 장점과 상서로운 태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나는 확실히 형씨가 낫다고 할 것입니다.”<sup>16)</sup>

이씨의 장점은 맑고 아름다우며 소담함이지만 너무 맑고 가냘프고 약한 게 흠이며, 냉담하고 온순한 성품은 군자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온화하고 씩씩하면서도 상쾌하여 영웅 같은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운명과 이씨는 의형제에서 부부로 맺어졌지만, 이씨의 상황과 성품이 운명의 호색(好色)함에 맞지 않아 부부가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다. 운성이 형씨를 지나치게 좋아 하여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운명도 이씨만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정씨의 모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이씨는 친정 부모의 사랑을 세우고 예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며, 10년을 각방을 써야 겨우 수명이 연장될 운명이기도 하기에 둘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다.

### 3) 다른 아내만 바라보는 운명, 질투하는 정씨

운명의 셋째 부인은 정씨이다. 정참정의 큰딸인데, ‘고운 얼굴이 출중하고 기질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소개된다. 정참정이 운명을 보고 사위로 삼고자 하여 사촌누이 정귀비에게 부탁하여 혼인하게 된다. 정씨가 예쁘고 새로운 정이 있어 서로 즐기는 것이 비길 데가 없었으나, 운명은 ‘애원하는 듯하면서도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한 이씨의 모습을 잊지 못해 탄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sup>17)</sup> 정씨가 이상하게 여긴다.

자신을 앞에 두고도 다른 아내를 그리워하여 한숨을 쉬고 잠도 못 지는 남편을 이해할 아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씨를 소개할 때에 기질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했고 이씨가 본 정씨도 ‘강하고도 굳세며 영리하다’고 한 것

16) <소현성록> 10권 66~67쪽.

17) <소현성록> 10권 111쪽.

을 보면 제법 관찮은 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운명은 그녀에게는 잠깐 마음을 줄 뿐, “오직 이씨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임을 슬프게 여기고 그 어진 행실과 맑은 덕, 꽃과 달 같은 풍채와 용모를 좋아하여 마음이 무르녹고 뼈 마디 마디가 감격스러워 평생토록 같이 즐길 것을 기약하고 한 시각이나마 함께 있는 것을 경사로 알았다.”<sup>18)</sup>라고 서술될 만큼 이씨만 바라본다.

투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임씨는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이씨와 잘 지내지만, 보통의 여성은 그렇지 않다.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한 여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미모를 지녔을 때에 질투심은 극에 달한다. 정씨가 본 이씨의 모습이 그러하여, ‘사람의 피와 살을 가진 이가 어찌 이렇게 아름답을까? 분명 귀신이 희롱하는 것이다. 내 이미 저 같은 적국(敵國)을 얻었으니 앞길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sup>19)</sup>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이 좋지 않게 되고 걸논질을 하며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그녀는 다른 아내들을 대할 때에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소원하게 대하게 되었으며, 정씨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씨와 이씨가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정씨는 계교를 쉽사리 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좋은 척하며 인심을 얻고, 운명의 뜻과 비위를 맞춰 충애를 받도록 꾀를 내며 지낸다. 운명도 정씨에 대해 은근하고 자상하며 곡진하게 대하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씨를 그리워하고 그녀가 박복할까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문안 때에 이씨를 잠깐이라도 보면 정신을 놓으며 그녀의 안부를 시시로 묻다가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허둥거리곤 하니 정씨는 더욱 애가 탄다.

그러던 중 소승상과 운성이 운남으로 출정하게 되자 음모를 꾸미는데,

18) <소현성록> 10권 114~115쪽.

19) <소현성록> 10권 113쪽.

승상의 손님으로 있던 성영이라는 이에게 뇌물을 주어 이씨가 그와 간통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이씨의 시녀들까지 포섭하여 믿게 하니, 성정이 조금 한 운명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씨를 죽이려하게 된다.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다는데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함께 가둔다. 시어머니 화부인도 현명하지 못하여 말리지 않고 이씨 부모의 사당에 불을 지르고 신위를 깨뜨리려 할 정도로 미워한다. 정씨는 운명이 아직도 이씨에게 연연하며 탄식하는 것을 보고 시녀에게 이씨를 죽이라고 하기까지 했으나 불발된다. 이씨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운명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하거나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 11개월 만에 소현성과 운성 등이 집으로 돌아와서야 이씨는 풀려나고 운명과 정씨는 벌을 받는다.

정씨는 미모가 있고 민첩하고 영리하고 가문이 좋은데도, 혼인한 뒤 남편의 적국 편애에 질투를 느껴 사람을 해하게 되어 불행하게 된 여성이다. 투기하고 지아비의 총명을 가리는 요괴로운 꾀를 내었다는 죄명으로 친정으로 쫓겨나고, 그 후 아버지가 죄를 지어 장사 땅으로 귀양 가는데 따라 갔다가 재혼하여 살게 된다. 우연히 보게 된 운명이 원수같이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들이 말려 죽이지는 않지만<sup>20)</sup> 굴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 3. 소운명 부부 형상화의 의미

#### 1) 평범한 가장의 시험대

운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남성이다. 이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상황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어 안달을 하는 것을 보고 식구들이 비웃을

20) <소현성록> 15권 29~32쪽.

정도였으며,<sup>21)</sup> 이씨가 양부인 처소에 있어 만날 수 없고 이씨도 차갑게 대하며 돌아가라고 할 때에도 그녀의 풍채와 태도를 보고는 ‘마음이 어리석어 지고 뜻이 녹아져서는 속절없이 두 눈으로 소저의 자태를 바라볼 뿐’이고, 아내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소승상이나 운성과는 다르게 ‘유독 운명은 마음의 뜻을 굳게 세우지 못하여 더욱 이씨를 잊지 못하고 두 눈이 이씨에게 향해 있으니 모두들 서로 바라보며 웃음을 머금었다’<sup>22)</sup>고 되어 있다. 나중에 이씨가 죽었을 때에는 너무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사당에 가서 울부짖기까지 하니 그만하고 진정하라고 할 정도이다.<sup>23)</sup>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 판단력이 흐릴 때가 있다. 악인들의 모해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군자형 인물의 남성에게는 작품 내에서 잘못을 씌우지 않고 악인의 탓을 하거나 선인의 운명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은 그 잘못을 그대로 받아 크게 꾸중을 듣고 매를 맞는다. 선한 이씨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악인들의 모해를 믿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sup>24)</sup> 앞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도 이

21) 이렇게 사모하는 정을 말하고 기운 없이 슬퍼하며 옥 같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니 돌이나 나무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감동할 듯한데, (중략) 이씨를 따라가지 못하고 헛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그 옥 같은 얼굴,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하니 미칠 것 같아 속절없이 풍월을 읊으며 시간을 보냈다. <소현성록> 10권 102~103쪽.

22) <소현성록> 10권 133쪽.

23) 3년 상을 마쳤으나, 상서가 취봉각을 차마 보지 못하여 문을 잠가 놓았다. 그리고 행동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되는 대로 시집(詩集)을 뒤지면서 시를 읽었고 집안사람들이 이씨에 대해 말할 때에는 눈물이 먼저 솟아났다. 그리하여 여러 형제들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였고 승상도 책망하였지만 마음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 <소현성록> 15권 27쪽.

24) “..... 비록 간사한 사람이 일만 가지 간사한 계교를 내더라도 네가 눈으로 보기 전에 어찌 두어 장의 헛된 글과 종의 말 때문에 강상(綱常)을 폐하며 본부인을 이렇게 의심하느냐? 하물며 성영은 내숭스럽고 음흉하며 간사한 사람이다. 평소 끈지 못한 것을 네가 또한 이는 마이면서 어찌 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꾀에 빠졌느냐? 또 집안에 네 형제가 여럿이 있고 보는 눈이 많은데 어찌 설마 다시 의심스런 행동이 네 눈에만 보였겠느냐? 또 자객이 이씨를 해치려고 칼을 차고 담을 넘어가는

렇게 서술되면서 인물 평가가 달라지도록 한 것이다.

즉 운명은 감정에 흔들리고 색을 밝히는 평범한 남성이기에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이런 면은 아내들의 처신과 비교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sup>25)</sup> 첫째 부인 임씨는 엄격하고 과묵하며 단정하고 절제하는 여성이다. 그래서 운명이 이씨를 맞이한다고 해도 담담하다.

“남자의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성인이 허물하지 않으신 것이니 어찌 세상에 처자 한 사람으로 늙은 자가 있겠습니까? 아버님의 엄숙하고 바른 교훈이 비록 두려우나 낭군이 또한 두 번째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당한 일입니다. 어찌 한스러워하겠으며, 또한 지아버의 병을 염려하는 것이 어찌 인정 밖의 일이겠습니까? 아주버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을 모르겠으며 몹시 이상할 따름입니다.”<sup>26)</sup>

데 너는 어찌 깨닫지 못하고 이씨를 해하려는 말을 곧이들었느냐? 게다가 이씨는 의지할 만한 데가 전혀 없는 너의 두 번째 부인이고 우리 집 부녀자들은 개인 재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오백 금을 얻어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겠으며, 영민은 또한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금을 쓰지 않고 어찌 알고 간수하고 있었겠느냐? 구구절절이 들어맞지 않고 그 사이의 정황이 분명하여 감추기 어려운데 너희 모자는 아득히 안개 속에 빠져서는 깨닫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명령을 거스르고 형제의 바로 잡으려 함을 듣지 않으며 무식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감히 이상서의 사당을 부수면서 법도가 아닌 행동을 하려 하였다. 또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이씨의 아이를 죽여 무단히 골육을 해하려 하는 등 망령된 죄가 산 같다. 그러니 풍속과 교화를 더럽히고 집안의 명성을 욕 먹인 죄는 죽여도 아깝지 않다……” <소현성록> 12권 29~31쪽.

- 25) 이 작품과 같이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초기작으로 추정되는 <유씨삼대륙>에서의 부부갈등은 대체로 정숙한 여성과 군자형 남편 사이에 발생한다. 정숙한 여성은 탈규범적 여성, 교태로운 여성, 호걸스러운 여성들과 대비되면서 남편에게 소외되는데, 이러한 서사를 통해 여성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작품이라 평가된 바 있다.(한길연, 앞의 논문, 347~350쪽.) 이에 비해 <소씨삼대륙>에서 소운명 부부의 경우는 군자가 아닌 남편, 즉 범인형 남편이 정숙한 두 여성, 교태로운 한 여성을 아내로 두어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정숙한 여성인 이씨를 더 좋아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남편의 혼인, 남편의 상사병에 초연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시아주버니인 운성과 운정은 어질고 너그럽다며 탄복한다. 이를 전해들은 운명도 다시 한 번 그녀의 마음을 묻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을 구경할 수 있을 영광을 가지게 되었으니 빨리 회복하여 길일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기 까지 한다. 이에 운명은 임씨의 성덕에 감격하고, 임씨는 운명과 이씨의 혼인 날 치장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운명은 그녀의 사람됨과 말에 존경심까지 우러난다.<sup>27)</sup>

둘째 부인 이씨도 남편과 다르게 침착하고 초연한 태도를 지닌 여성이다.

생이 춘앵에게 이불을 깔게 하고 이부자리 위로 오르니, 소저가 매우 민망하여 백 가지로 마음을 돌리도록 권유하고 천 가지로 달래고 빌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소생이 거짓으로 취하여 못 듣는 척하니, 그 은근한 정이 샘물 같고 뜻이 무르녹아 간절한 마음이 운우지정(雲雨之情)에 빠진 듯했다. 원앙이나 공작, 혹은 비취새라도 생의 은정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이씨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할머님의 금지 명령이 있었으니 사사롭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다. 비록 승상의 명으로 이곳에 왔으나 서러운 마음에 온갖 회포를 머금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소생의 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끝내 생의 정을 받아주지 않자 생이 박정하다고 책망했다.<sup>28)</sup>

운명의 마음이 간절한 것에 비해 이씨는 흔들림이 없다. 자신의 신세에 대해 슬퍼하기만 하고 거절하니 박정하다는 책망을 듣는다. 이후에도 운명이 느끼는 이씨는 ‘부인의 흰 옥과 같은 심장이 갈수록 얼음같이 얼고 황금같이 굳어지니’라거나 ‘심장이 쇠나 돌로 된 사람같이 보이거나’, ‘얼음 같고

26) <소현성록> 10권 53쪽.

27) <소현성록> 10권 54~55쪽.

28) <소현성록> 10권 108~109쪽.

수정 같은 풍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늘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더욱 이씨를 그리워하며 온통 이씨를 향해 있어서 조금해 하여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 판단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 2) 극복하기 어려운 전생의 업보와 운명 확인

운명과 임씨, 이씨, 정씨는 전생의 업보로 얽힌 인물들이다. 운명은 금강산 신선 즉 동방선, 임씨는 봉래궁의 선녀 홍연, 이씨는 남해 용왕의 딸, 정씨는 그 시녀 설낭이었다. 이것을 이씨가 꿈을 통해 먼저 알게 되고<sup>29)</sup>, 나중에 여승이 자세하게 알려준다.

“소시랑 운명은 본래 동방 금강산 신선(神仙)입니다. 일찍이 유람하다가 봉래산에 이르렀는데 봉래궁의 선녀 홍연이 미모의 뛰어난을 자랑하자 동방 선인인 운명이 계수나무 열매를 던져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봉래부인이 이 말을 듣고 홍연이 얼굴만 민고는 덕을 잃은 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겨 얼굴을 박색으로 만들어 임씨 가문의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 사람이 임씨입니다.

이소저는 남해 바다 용왕의 딸입니다. 관음대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동방선인이 남해왕에게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용왕이 자신의 딸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관음께 물어보니 관음대사가 동방선인의 그윽한 정을 듣고는 불가(佛家)의 맑고 깨끗한 도덕을 어지럽힐 수 없다고 하여 즉시 용녀에게 140일 말미를 주고 동방선인과 혼인하여 정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곁에서 모시는 시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설낭이었으며 잉어의

29) 이날 이씨가 꿈을 꾸었는데 아름다운 한 사람이 손에 보검을 들고 소저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전생에 망령되게 잘난 척하면서 나를 압도하여 남자를 따라 귀향(歸鄉)하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십년을 장부와 거리를 두어 나와 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대를 평안히 지내게 하겠습니까?” 말을 마치고는 칼을 들어 바로 찌르려 하니 상황이 위급하였다. 마침 소생이 들어오자 그 여자가 황급히 돌아갔다. 소저가 이에 놀라 깨니 덧없는 꿈이었다. <소현성록> 10권 109쪽.

정령이었습니다. 설낭이 동방선의 얼굴을 흠모하여 늘 몰래 사통(私通)하고자 하니 용녀가 분노하여 한바탕 마구 때려 죽였습니다. 관음이 즉시 살려주시고 용녀가 투기하는 것을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동방선이 상제로부터 죄를 얻어 속세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봉내의 홍연도 따라가고 용녀도 또한 스스로 귀양을 가서 인연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설낭 또한 관음대사의 명으로 속세에 내려가 있었는데 동방선과 인연을 이루기 위해 월하노인에게 부탁하려 했습니다.

이때 용녀가 먼저 가서 월로에게 속세에 나가서 장부의 첫 번째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니 월로(月老)가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으니 홍연을 동방선의 정실로 삼고 용녀를 둘째 부인으로 하고 설낭이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용녀가 갑자기 달래며 자신이 비록 속세에 가서 장부를 먼저 얻지만 당당하게 십년을 거절하여서 설낭의 혼을 풀고 총애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낭이 드디어 물러난 후 또 금강산 선녀 4인이 함께 이르러 말하기를 자신들은 선군(仙君)집안의 심부름꾼 시녀인데, 평소 선군의 풍채와 태도를 우러러 사모하여 배개 받들기를 원하였으나 선군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서러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세에 나가서라도 인연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월로가 네 사람을 다시 불러서 붉은 실로 매어 동방선과 이어 주니 이들이 곧 민씨, 국씨, 부씨, 요씨였습니다. (후략)<sup>30)</sup>

특히 이 전생담에서는 이씨와 정씨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씨가 자신의 시녀인 정씨가 남편 동방선을 흠모하여 사통하고자 하는 데에 분노하여 죽인 일이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관음보살이 즉시 살려 주어 속세로 귀양을 같이 오게 된다. 홍연 즉 임씨가 첫째 부인, 용녀 즉 이씨가 둘째 부인, 설낭 즉 정씨가 셋째 부인이 되고, 동방선의 시녀 4인이 운명의 나머지 네 명의 부인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씨는 혼인 후 관계를 10년

30) <소현성록> 12권 73~75쪽.

거절함으로써 설낭의 원혼을 풀어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관계는 전생의 연분이 현생에서 합해지고 전생의 원수를 현생에서 갚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만약 정씨가 설낭이 지냈던 원한을 제기하지 않고 함께 잘 지냈다면 이씨의 복이 정씨에게 돌아가고 이씨가 전생에 투기하여 살인한 죄는 그녀 스스로 입었을 것인데, 정씨가 음흉한 꾀를 내서 이씨를 해하려 했기에 시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 이씨는 아버지 용왕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이 짧지만 소승상이 복두성계 청하여 18년을 더 얻어 35세를 살게 하여 부분적으로 극복하기는 했지만 역시 하늘이 정한 목숨의 기한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많이 늘릴 수는 없음을 알게 된다.<sup>31)</sup>

### 3) 비범한 아내들의 연대 강조

운명의 아내 임씨와 이씨는 마치 <구운몽>의 처첩들처럼 사이가 좋다. 서로 위해주며 감정을 소통하기도 하고 슬픔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공존한다. 특히 임씨는 성품이 맑고 고결하며 말에 법도가 있고 현철한 군자 같은 여성이기에 모든 가족들이 칭탄한다. 운명도 공경할 만한 위엄과 신중함이 있으면서, 소현성이 감탄할 만한 논리성과 당당함이 있다. 그런 그녀는 남편의 호색함을 꾸짖는가 하면 재취하는 것에도 초연하다. 이씨나 정씨와의 혼인에 흔쾌히 남편의 길복을 짓고 그녀들에게도 친절하며<sup>32)</sup>, 정실로서의

31) 여타 작품들에서도 부부의 전생 업보가 이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이를 이겨내고 장수하는 것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전생과 이생의 영향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보는 듯하다.

32) 날을 택하여 혼인을 하는데 임씨와 이씨의 기색이 태연하며 차분했다. 혼례복을 서로 도와가며 만들고 조금도 시기하는 태도가 없으니 (중략) 임씨가 상냥하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첩은 싸움을 일삼는 대신 어질과 의로 화목하게 지내려 합니다.” 이씨 역시 웃으며 말하였다.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은 깃발을 기울어뜨리고 창을 거꾸로 들며 갑옷을 벗어 행복의 표를 올리고 스스로 신하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무기를 갖춰 서로 앞서려고 다투겠습니까?” <소현성록> 10권 106쪽.

체통과 위엄을 지니고 집안을 통솔한다.

이씨도 남편의 애정에 연연하지 않는 아내이다. 운명이 자신을 박대했던 것을 사과하러 왔을 때에도 십여 일을 용납하지 않고 침묵하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고 떠돌다가 온 사람이기에 남들이 정결하지 못한 여성이라고 여길까 염려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데에 신경을 쓴다.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으며 남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남편에게도 안색과 말소리를 더욱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여 그가 지난 일을 후회하고 답답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 화부인까지 나서서 마음을 풀라고 하고 운명이 여러 차례 애절한 뒤에야 말을 쉬지만 이때에도 허락하기 보다는 거두어준 은혜를 생각하여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정도이다. 운명이 은근하고 곡진하게 정을 표현해도 ‘조금도 기뻐하거나 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곤란하게 욕을 보이고 구박하던 일을 생각하고는 매우 한심하게 생각’<sup>33)</sup>한다. 이후에 운명과 화락하게 지내지만 늘 임씨에게도 부부간의 즐거움을 온전하게 하라고 권하며, 임씨를 도와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에 차등을 두지 않아 집안이 평화롭게 한다.

이렇게 당당한 아내 임씨와 정결한 아내 이씨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감정을 소통하기도 한다. 특히 이씨가 모함에 빠져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임씨는 그녀의 억울함을 변론한다. 다른 사람이 상황을 꿰뚫지 못하여 진실과 거짓을 알지 못할 때에 진실을 꿰뚫어 보고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씨와 일명 적국(敵國)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작은 사사로운 정이나 꺼리는 마음으로 어머님 전에 감추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씨는 평소 덕행이 견고하고 엄숙한 태도가 맑고 높아서 백희(伯姬)가 불에 타서 죽은 것과 반비(班妃)가 궁궐의 문을 나서지 않은 것을 본받고 일찍이 함부로 당에서 내

33) <소현성록> 12권 51쪽.

러오지도 않았습디다. 그런데 어찌 집안 손님을 알겠습디니까? 설사 안다고 한 들 금과 비단을 어디에서 얻어 문지기에게 주고 또 어디로 가서 성생을 찾아 데려왔겠습디니까? 게다가 옥난이 명현궁 화원에 가서 성생과 함께 글을 주고 이 야기를 나눴다고 하니 더욱 이치에 맞지 않습디다. 성생이 설사 이씨가 시녀인 줄 알아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옥난은 낭군을 거리낄 텐데, 어찌 구태여 낭군과 성생이 환담을 나누는 곳에 따라가서 가만히 통하였겠습디니까? 이것은 분명 이씨를 해치려는 사람이 옥난 등과 한 마음을 먹고 거짓으로 숨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낭군이 알도록 하려 했던 것입디다. 경대 속 성생의 편지는 반드시 같은 마음을 먹은 시녀가 경대 속에 이씨 몰래 넣어둔 것입디다. 만일 진짜로 이씨가 한 일이면 어찌 글을 없애지 않고 경대에 던져두었겠습디니까? 음란하고 방탕하며 간사하고 교활한 일을 만들어 어머님의 총명을 가리고 낭군의 화를 돌우니, 이 일을 지어낸 자는 바깥사람도 아니고 또 귀신도 아닙디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니 바라건대 어머님께서는 밝히 살피주십시오.”<sup>34)</sup>

임씨는 이씨가 평소에 덕행이 건고하고 엄숙한 태도가 맑고 높으니 외간 남자를 만날 리가 없다, 개인 재물이 없으니 사람을 살 수도 없다, 시녀와 악인이 공모해서 만든 일이다, 상황들이 다 맞지 않는다는 등등 구구절절 맞는 말을 하면서 진실을 밝힌다. 정씨가 당황하고 화부인은 화를 내면서 방자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당당히 이씨를 변호하고 나선 용기는 주목할 만하다. 이후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남들 몰래 자신의 옷들을 보내려 하기도 하고, 운명과 화부인이 이씨의 죄상을 말하며 분노할 때에도 끝내 동조하지 않으면서 홀대를 받는다.

이씨가 죽음에 이르러 임씨에게 “제가 어릴 때부터 부인과 더불어 같은 어머니의 소생처럼 화목하여 한 때라도 보지 못하면 서로 찾아 위로했습디다. 그런데 지금 죽게 되니 이별이 슬프디다.”<sup>35)</sup>라고 한 것에서도 그녀들

34) <소현성록> 11권 70~71쪽.

35) <소현성록> 15권 25쪽.

의 친밀함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여성 간의 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화부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에 시누이 월영이 도와주어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버금가는 사이이다. 여성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말하고 위로받는 장면들과 함께 여성 친화적인 면모라고 할 만하다.

반면에 정씨는 당당하지도 지조가 있지도 않은 평범한 여성이다. 기질이 이름답고 영리하기는 하지만 임씨와 이씨에 비하면 평범하기에 보통의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sup>36)</sup> 늘 이씨만 바라보는 남편에게 실망하여 암담해 하면서 이씨를 죽이려는 계교를 내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추락하고 만 것이다. 남편이 다른 아내와 혼인을 해도, 그녀만 아껴도 아랑곳하지 않는 비범한 아내들, 이상화된 여성들과는 달리 남편의 애정을 갈구했기에 추락하게 된 평범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 <소씨삼대록> 속 소운명 부부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운명 부부에 관한 서사는 작품 전체 15권 중 세 권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아버지 소현성이나 형 소운성과는 달리 ‘보통 남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면이 있었다.

36) 정씨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추락하고 마는 것으로 그린 점은 이 작품이 여성의 질투를 허용하지 않는, 즉 다처제를 용인하는 면을 보이는 것(이지하, 앞의 논문, 255쪽)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여타 작품들에서는 다른 선한 아내들이 연대하기보다는 각자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임씨와 이씨는 서로 변론하고 의지하는 면을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작품 내에서의 소월영의 역할과 화부인에 대한 조력 등과 더불어 이 작품의 여성친화적인 면모라고 평가할 만하다.

소운명과 임씨 부인, 이씨 부인, 정씨 부인의 조합을 각각 분석하고 그에 담긴 의미를 추출하였다. 운명은 문재(文才)가 뛰어나고 선량한 남성이지만 슬기롭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면이 있어 늘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아내 임씨는 후덕하고 논리적이며 군자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둘째 부인 이씨는 예쁘고 연약한 외모이지만 심지가 굳고 정결하며 청아한 여성이어서 운명이 사모하는 것과 달리 초연하다. 또 다른 아내 정씨는 남편이 이씨만 바라보는 것에 질투를 느껴 악행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쫓겨난다.

이러한 부부 형상화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니, 첫째, 평범한 가장의 시험대, 둘째, 극복하기 어려운 전생의 업보와 운명 확인, 셋째, 비범한 아내들의 연대 강조라 할 수 있었다. 소운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져 악인들의 모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죄 없는 아내를 핍박하고 아들까지 죽이려 하였다. 이러한 면은 과묵하고 절제하며 논리적인 임씨와 대조되면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운명과 세 아내는 전생의 업보로 얽힌 사람들이라고 설명되고도 있다. 동방선이었던 운명, 봉래궁 선녀였던 임씨, 남해 용왕의 딸이었던 이씨, 그 시녀였던 정씨 등은 전생에서 흠모하고 사통하고 분노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어져 운명적으로 만나고 고난당하고 극복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극복될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비범하고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된 임씨와 이씨는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인군자나 영웅호걸이 아닌, 선인도 악인도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운명’의 모습, 감정에 휘둘리고 사랑에 흔들리는 남성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흥미로운 서사로 다가가 작품에 몰입하는 효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참고문헌

- <소현성록>·<소씨삼대록>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 각 120쪽 내외.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각 400쪽 내외.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 남성인물의 ‘공감’에 대하여 - <명행정의록>의 ‘위천유’를 주목하며, 『한국문학논총』 84, 한국문학회, 2020, 171~210쪽.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97~129쪽.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5~41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7쪽.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 이지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천수석>의 특징과 의미,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249~282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쪽.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서, 2012. 1~336쪽.
-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173~212쪽.
-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321~355쪽.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So Woon-myung Couple and  
Its Meaning in “SoSsiSamDaeRok”

Jeung, Sun-hee

This study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So Woon-myung couple and its meaning in the novel “SoSsiSamDaeRok,” a Korean full-length novel written in the late 17th century. So Woon-myung is kind and good at writing, but he was always considered deficient because he was not generous and was swayed by emotions. In comparison, his wife, Lim, was described as a woman like a scholar and a saint because she was virtuous and logical. His second wife, Lee, is a pretty and fragile-looking woman, but she is strong-minded, noble, and pure, so she is detached from Woon-myung’s love. Another wife, Jeong, is jealous of her husband looking at Lee only, so she commits an evil deed and is kicked out to her par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representation can be said to be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as a test bed for a head of household, the karma and fate of a previous life, and the solidarity of a virtuous wife and a pure wife. It is noteworthy that “Woon-myung” as an “ordinary person” was considered interesting while receiving sympathy and criticism from the readers, making them immersed in the work.

**Key Words** SoHyunSungrok, SoSsiSamDaeRok, Korean full-length novel, couple, ordinary male character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